

5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남원시조공사법법인, 산지유통 구조개선 평가서... 9000만원 국비 추가 지원

남원시조공사법법인(대표 박해근)이 전북도가 주관한 '2017년 산지유통 구조개선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전북도가 도내 13개 조공법인에 대해 2017년도에 농산물 산지유통전반에서 추진한 통합마케팅 업무를 시·군 자체평가를 거쳐 유통 전문가들의 현장 실사단 전문 심사평가로 이뤄졌다.

전북도는 규모화, 조직화, 전문화 등 4개 분야 15개 지표를 가지고 농산물

산지유통 구조개선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남원시조공사법법인은 통합마케팅조직 총취급액, 공동계산취급액 및 공동계산을, 참여조직(5개농협)의 출하 비율(93.4% 달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는 이번 평가 결과 인센티브로 국비 9,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5년 동안 국비 5억7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의 2017년

남원시 통합마케팅 매출실적은 830억 원이며 그 중 공동선별취급액은 339억 원으로 40.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남원시는 다변화 하고 있는 국내의 농산물 시장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농산물 통합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산물 공동브랜드"춘향애인"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남원농산물 인지도 향상 및 고품질 농산물 이미지 구축에도 힘쓰기로 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내달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7개 유치 확정

순창군수배 유소년 야구대회와 회장기 전국정구대회를 성공리에 끝낸 순창군이 4월에 7개의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유치를 확정해 스포츠마케팅 저력을 과시했다.

4월 개최가 확정된 경기는 '2018 국제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 '제51회 전국농도종별선수권대회', '2018 전국남여농도종별선수권대회', '제68회 춘계 전국대학남여단체유도대회', '2018 춘계 전국실업검도대회', '제15회 전라북도 지사기 전국합기도선수권대회', '제22회 한국초등연맹회장기테니스대회' 7개 대회다.

우선 '2018 국제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는 국제테니스연맹과 대한테니스협회가 주최·주관해 오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9일간 열린다.

10개국이 참가하는 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로 개인복식, 개인단식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300여명의 선수·임원·심판들이 참여한다.

또, 4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제51회 전국농도종별선수권대회' 및 '2018 전국남여농도종별선수권대회'도 1,000여명의 대규모 선수단이 순창을 찾는 전국대회다.

연이어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68회 춘계 전국대학남여단체유도대회'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전초전으로 400여명의 시·도 선수단간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전력 분석차 체육관계자 대거 방문도 예상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운암면, 독거노인 집안 대청소 실시

임실군 운암면(면장 오광덕)지원과 행복보장협의체(위원장 형대욱)위원 20여명은 새봄을 맞이하여 29일 관내 거동불편 독거노인 농가를 찾아가 집안 대청소를 실시했다.

운암면 화암마을에 거주하는 이막동씨(80세)는 "거동이 불편해 혼자 힘으로 집안 대청소를 하고 싶어도 마음뿐이었다"며 "운암면지원과 운암면행복보장협의체의 도움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일상을 보낼 수 있어 고맙다"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이씨는 거동은 불편하지만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며 사회구성원으로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효심행정 어르신 '호응'

의료기기 등 지원



임실군의 효심행정이 지역 어르신들의 큰 호응 속에 탄력을 받고 있다.

올해 효심행정은 더욱 체계적이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를 책임지는 정책으로 안착하고 있는 분위기다.

실생활형 정책으로 대표적인 것은 경로당 지원사업이다. 군은 올해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랑방이자, 소통의 공간인 경로당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 중이다.

지난해 343개소 전 경로당에 에어콘을 설치해 폭염에 대비한 데 이어 올해는 어르신 건강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지원한다. 1억원을 들여 안마의자 등을 경로당에 설치한다.

또한 나후되고, 오래된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데 8억원을 투입한다. 쾌적한 환경을 위한 청소와 방역, 정수기 소독 등에 5000만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급식도우미 지원도 활발히 전개한다. 고령으로 인해 식사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급식도우미 사업을 추진, 2억원을 지원한다. 건강한 생활의 기본인 영양섭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인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특별교부세 및 도조

경교부금 13억과 군비 55억, 총 68억 사업비를 투자해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의 복지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공은 2019년 10월이다.

어르신들의 위생적이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한 작은목욕탕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한다. 저렴한 가격에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어 어르신들이 무척 반기고 있다.

작은 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임실읍을 비롯한 5개 읍면 어르신들에게는 연간 13매의 목욕이용권도 배부하고 있다. 1,000원 버스를 타고 어르신들이 단체로 마실 삼야 목욕을 가는 호젓한 풍경이 종종 연출되기도 한다.

최상의 복지로 꼽히는 일자리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군은 임실 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24억을 투

자, 작년대비 100여명이 증가한 987명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서는 독거노인 관리사 26명이 680여명이 상시 활동하고 있다. 119소방서와 연계하여 화재 및 가스 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묘지로 인한 국토의 훼손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장묘문화 조성을 위해 화장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 준비에 들어갔다.

심 민 군수는 "임실은 어르신 인구가 전체의 30% 이상이 남을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효심행정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춘향인재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재)춘향장학재단은 지난 28일 춘향골 체육관에서 재단이사과 학생,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춘향인재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올해 선정된 장학생은 모두 132명으로, 우수장학생 59명, 특기장학생 39명, 보람장학생 19명, 희망장학생 15명이다. 고등학교 우수 신입생에게는 최고 500만원에서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우수 장학생 200만원, 특기장학생 및 보람 희망장학생 100만원 등 총 2억 2천1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역인재들에게 전달했다.

이원주 춘향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학업에 정진하고 지역사회의 희망으로 자리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장학생들에게 전했다.

또,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받기까지 부모님과 스승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당부했다.

한편 춘향장학재단은 1995년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매년 춘향인재 장학선발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1,810명의 장학생들에게 총23억1,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금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기공식

금지면(면장 류홍성)은 30일 오전 11시 금지면 용정리(면사무소 옆)에서 이환주 남원시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본 사업은 용정리 일원 7,809㎡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금지누리센터 및 공공서비스공간, 전원생활체험의 집, 문화산책로 등 9개 사업에 52억 9천만원이 투입된다.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훈·김대용)가 기본계획단계부터 참여한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금지면 사무소 입구에 들어서는 금지누리센터(1,355㎡) 및 공공서비스공간(5,747㎡)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의 대표 사업으로 다목적 강당, 체력단련실, 도서관, 쉼터 등이 조성된다. 이곳에서는 그룹별 수요에 맞는 문화,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립국악단의 창극, 올해는 춘향테마파크에서

남원의 대표 관광 브랜드인 남원시립국악단의 창극(이하 남원창극)이 올해는 춘향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광한루원에서 벗어나 춘향테마파크로 장소를 옮긴다.

남원시립국악단의 2018년 새 작품 '춘향만리(春香萬里)'는 오는 5월 5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9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춘향테마파크에서 총 24회 펼쳐진다.

남원시립국악단은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창극 '광한루연가' 시리즈를 선보여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과 함께 국악의 소장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춘향만리'는 춘향가의 탄생배경에 기반한 상상력을 더해 극중극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일제 강점기 '남원 권변'에 뿌리를 둔 남원시립국악단은 지난 20여 년 동안 창극 춘향전을 선보이며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특히 지난 해에는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관객들의 감응을 해소하기 위해 창작창극 '월매를 사랑한 놀부'를 제작하여 관객의 층을 넓혔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주 관객층에서 다시 전통 소리를 찾는 요구가 증가하면서 올해 '춘향만리'는 다시 '소리'에 집중했다. 전통 판소리 김세종씨 성우향 바디를 중심으로 판소리 춘향가의 탄생배경을 이야기하며 전통 판소리의 진미를 선보일 계획이다.

개막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이후 관람료는 10,000원이지만 남원명소 방문객 할인 및 전북투어패스 카드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춘향테마파크는 오후 6시부터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판소리 따라 배우기, 퓨전국악 버스킹 등 관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서울지역 학생들, 순창 전통장 체험

서울지역 학생들이 순창의 전통장(醬)을 맛보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순창군은 29일 서울시 신청사에서 서울시와 '2018 전통장 문화학교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서울소재 17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교장선생님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전통장 문화학교는 순창군과 서울시가 공동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전통장(醬)과 발효 문화 체험을 통해 우리 고유의 식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전통장을 직접 담그고 배운 뒤 잘 숙성해 각 학교로 보내져 급식에 사용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